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시설

수도권 규제완화 더 이상 안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같이 비수도권의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되면 지방의 피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최소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면...

주민소환제 시행 기대와 우려 교차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25일부터 시행된다.

로도 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제의 기본정신은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의 확립이다. 지금까지 선거를 제외하곤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가 만능일 수는 없다. 남발하면 지방행정의 부패가 혼들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적 요건만 확보하면 짧은 시일 내에 단체장이나 의원들에 대해 신임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되 선심행정을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리는 등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無等鼓

민선자치 이후 두드러진 양상은 전시행정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까닭에 '표'를 의식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9시간, 코스마다 5~8곳의 경유지를 30분 간격으로 돌러야 하는 승객들은 파김치가 돼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전시행정



우리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에서 한 일정을 소화하도록 스케줄을 짜고, 수요예측도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와중 속, 전남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자는 누락되는 적자에 '죽을 맛'일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구상은 여지없이 빚나갔다. 지금껏 450여 차례의 버스가 운행됐으나, 이용객은 1천200여 명에 그친 것이다.

결만 번지르면 전시행정을 도민들이 모를 리 없다. 전남도청에 만연된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관광지 순환버스는 내일 또다시 텅빈 채 떠날 것이다.

판짜 송광사·오동도·운림산방·소록도·가곡 코스별로 관광객의 출발지·나이·교통 수단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지만, 전남도는 그렇지 못했다. 하루

운영 초기라는 전다. 지금껏 450여 차례의 버스가 운행됐으나, 이용객은 1천200여 명에 그친 것이다. 45인승 버스 한 대당 평균 탑승객은 고작 2.7명이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명품축제를 만들자

이로인해 생산성 없는 축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망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6년 문화관광부가 전국의 주요 축제 44개를 선정하여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광주·전남의 8개 대표 축제(광주김치, 남도음식, 무안 백련, 강진청자, 보성다향, 담양대나무, 함평나비, 진도바다)의 종합평가를 보면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에 의한 7점척도의 만족도에서 우리지역 8개 축제 평균 만족도는 4.64(8개제의 전국평균 4.71)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8개 축제기간중 1인당 소비지출액이 4만4천405원으로 나머지 평균지출액 4만9천3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만명까지 유치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도 시군마다 1개대표 축제로 그리고 도대표축제로 8개를 선정하여 육성하기로 한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축제의 공통점은 뚜렷한 특징이 있고 효율적인 홍보와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인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나 일본 사포로 눈축제, 이탈리아 베니치아의 가면축제, 그리고 브라질의 삼바축제는 축제 하나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관공적으로 넓은 평야와 갯벌, 바다와 섬이 어울린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관광자원과 축제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자연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하고 깊은맛을 내는 풍부한 음식, 그리고 관소리이다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지역만이 어울린 우리지역에 세계적인 명품축제를 만들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 대 영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성공적인 축제의 공통점은 뚜렷한 특징이 있고 효율적인 홍보와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역 8개 축제, 전국평균 이하

또한 축제의 64.9%인 763개가 1996년 이후에 시작된 급조된 축제가 많고 그러다보니 비슷비슷한 분야 축제는 소리를 듣는 축제들도 많다. 특색없는 먹거리 장터, 노래자랑, 미인선발대회 등 초등학교 운동회 수준의 축제도 많고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만 전국에 9개나 된다.

지역축제의 성공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직, 간접적으로 효과가 매우 크다. 가장 성공한 축제로 손꼽히는 함평나비축제는 금년에 방문객이 100만명에 달해 1인당 평균 소비액(2006년 기준) 4만2천910원으로 계산해 볼때 직접효과만 43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지역이미지상승, 고용창출, 주민소득증가 등 간접효과를 감안하면 그 성과는 막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가 금년부터 지역축제 육성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수를 100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박 찬 원. 세상엔 직업은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직업의 가지 수는 2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어떤 때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직업들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는 걸 볼 때는, 정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기고 김 용 환.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도시들이 앞다투어 바뀌 없이 자력(磁力)으로 이끄는 새로운 개념의 캐치프라이즈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세발 자전거 위험천만. 택배일을 하기 때문에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노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 상대로 한 캐릭터 끼워팔기, 그릇된 상혼.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과자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